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38)(3/5/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27 장 최고의 선을 이루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자기애, 4-5 절

엡 3:16-19 - 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결한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4. <제자>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시 51:12). 내게 능력을 주셔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엡 3:16), 내 마음에서 온갖 무익한 염려와 고민을 몰아내 주시며(마 6:34), 귀한 것이든 천한 것이든, 어떤  
것들에 대한 이런저런 욕망들에 내 마음이 끌려 다니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내 자신도  
그 모든 것과 더불어 지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해 아래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며 나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전 1:14; 2:17, 26).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5. 주여, 내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주를 구하여 찾는 법을 알게 하시고, 다른 모든 것보다도  
주를 기뻐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주의 지혜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알게 하소서. 내게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자들을 지혜롭게 피하게 하시고, 나를 반대하는 자들을 인내로써 감당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에 요동하지 않고(엡 4:14), 듣기 좋은 악한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큰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는 처음에 시작하였던 바로 그 길로 안전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해설:**

우리는 며칠 간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앗아가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왜곡된 자기애임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 자기애의 문제는 나의 내면의 문제이며, 이것은 근본적으로  
나의 죄성과 연결되고 죄에서 파생된 다양한 마음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엡 3:16-19 절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는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안고 시름하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준다.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는가?

**(1)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엡 3:16 -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얻게 위해서는 우리의 걸사람 이전에 속사람이 먼저  
바뀌고 성숙하고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 속사람이라 함은 인간의 내적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통하시는 자리이다.

“강건하게”라는 말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낙심하다’, 혹은 ‘용기를 잃게 하다’라는 말의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힘을  
얻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성도들이 마음이 흐트러지고 부패하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힘과 결단으로 일어나며, 더욱 새로워지며,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2)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엡 3: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를 믿음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함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심령에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내주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도의 과제는 주님의 임재를 계속 간구하며,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영이 임하는 공간, 주님의 영이 교통하는 자리임을 잊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는 바울의 권고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쉬지 말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3)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엡 3:17 - . . .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깊은 내주하심의 결과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 성도의 영적 기초와 뿌리와 터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견고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간다.

**(4)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엡 3: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평생토록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사람들이다. 제자는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씀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바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의식한 것 같다. 그래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급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깊음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함을 말씀했다. 주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이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롬 8:38-39 -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심령이 무너지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모든 기도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의 충만이다. **엡 3:19 - . . .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고 터가 견고해지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에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사라지고, 최악된 육신의 본성과 소욕은 제어되며, 거룩한 성령의 욕구에 이끌릴 것이다. 아울러 마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중심을 잡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바라보고 품어야 할 생각을 가지고 전진하며, 어떤 인생의 비바람과 환난이 닥쳐와도 내 안에 충만하신 주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곳곳하게 그 비바람을 뚫고 우리의 풋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될 것이다.

엡 3 장에 기록된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3. 하나님께서 한국의 대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조국이 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